

카자흐스탄의 다문화 속 고려사람의 운명

명 드미트리(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학)

111 독립의 선언과 더불어 신생 카자흐스탄공화국은 해결해야 할 새로운 중요 과제들에 직면하였
다. 그것은 사회의식의 지향점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새로운 가치체계를 확립하
고,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하에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이었다. 이 중차대한 문제들을 해결
16 하기 위해 국가 정책은 예전의 이데올로기에서 이탈하여 변화되었고 새로운 가치-문화적 구조
를 규정하였다. 과거에 강요되었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도그마 및 고정관념들과의 결별은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다양성을 다시금 이해하고 재인식하게 했다. 주요한 성취 중 하나는 카자
흐스탄의 다양한 민족문화가 부흥하고 발전한 것이었다.

현대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풍성한 문화적 다양성이 목격되고 있다. 다수의 민족적, 종교적
집단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조국을 발견하고 있다. 이미 몇 세대에 걸쳐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상당한 수준에서 지역 환경에 적응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
고 있다. 소연방의 몰락으로 독립을 획득한 후, 민족정책의 변화와 함께 고려인들은 자신의 문
화적 특성을 부흥시켜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란 민족의 존속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따라서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성취는 고유의 목적을 가졌으며, 문화의 세계는 가치의 세계이다. 문화는 일정한 위계 속
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가치들의 체계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 가치들은 문화의 일원들 다수에
의해 공유된다.

문화는 서로 관계를 맺는 민족과 인종들 통합의 발현이다. 카자흐스탄은 다양한 민족과 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국가이며, 민족들 사이의 합의와 안정성은 통합의 명백한 증거 중 하나이다.
통합 의식의 형성은 여러 민족문화센터의 등장, 나아가 문화와 언어를 부흥시키려는 그들의 활
동에서 표현된다.

문화적 다양성은 인간의 자기인식을 위한 주요 조건이다. 인간이 문화를 알면 알수록 그는 자
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그의 정신세계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문화 간 대화는 민족이나 인
종 간의 관용과 연대 및 통합의 형성과 강화를 위한 토대이자 주요 전제이다.

문화는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현상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문화가 인위적으로 조성되거나 변화
되지 않으며 그런 실험은 늘 문화의 변질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문화 발전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관한 아이디어가 입증되고 있다. 각 문화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는 정신적-도덕적
원형에 의거하면서, 글로벌한 문명화 과정 속에서 자기 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인간 세계는 각
양각색이고, 그것이 흥미로운 것은 그 어떤 논리적 근거 부여도 불가하고 또 다른 문화의 언어
로 적절히 번역되지 않는 고유의 문화적 성물이 각 민족의 문화적 토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 문화를 배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인의 경험을 연구할 수는 있으
나, 그것이 바로 타인의 경험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

다. 그러나 그것들은 "좋아질" 수 있거나 "나빠질" 수 없다. 그것들을 어떤 모양이나 모델에 따라 교정하려 하거나 개선하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적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카자흐스탄 사회 속의 고려사람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고려사람의 문화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생성될 때부터 놓인 모순들 및 소연방의 붕괴 과정으로 야기된 모순들의 전개로 특징 지워지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고려사람의 문화는 민족적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민족적 다양성과 결부되어 있다. 모든 민족이 소연방에 들어있던 시기에 고려사람의 문화는 심각한 시험을 거쳤으며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다른 민족의 이질적이고 이데올로기화된 문화적 가치가 민족들에게 강요되었다. 권력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온갖 노력을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간주하였다. 이 모든 것은 민족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서 이탈하게 하였으며, 이런 현실은 더욱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민족적 관습과 전통을 지우게 하고, 사회-정치적 생활에서 모국어의 가치를 폄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민족적 다양성이 박탈된 단일한 "소비에트 인민"을 형성하려는 모든 실험에도 불구하고 고려사람은 자신들의 자주성을 보전할 수 있었다.

카자흐들의 땅에서 벌써 80년을 넘게 살면서 고려인들은 자신의 문화 요소들을 러시아인, 카자흐인 및 다른 민족들의 생활양식 안에 집어넣었다. 새로운 생활양식은 카자흐스탄 사회의 양(兩)문화적 성격을 반영한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의 문화를 말할 때, 필자는 문화의 혼합이 아니라 그것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다. 각 민족문화는 존재할 권리 및 유익한 발전을 위한 권리를 가진다.

카자흐스탄 - 이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공동체이며, 그 안에는 누구에게든 자기 식으로 새로운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열려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조국인 것이며,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면 안 될뿐더러 조국에 복종해야만 한다.

고려사람은 다른 문화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 이 상호작용에 이원적 경향이 발현되고 있다. 러시아적 문화요소의 상호적 습득은 접촉의 강화, 두 언어의 병용, 이민족 간의 결혼 확대 등을 조장하여 통합 과정을 촉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민족적 자의식의 강화를 동반한다. 문화적 상호작용의 다양한 내적·외적 요인들에 따라 민족적 차원에서 문화접변의 다양한 형태들을 수용하여 그 가능한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추가 - 다른 문화와 충돌하면서 그 문화의 일부 성취를 수용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고려사람 문화의 단순한 양적 변화;
2. 복잡화 - 보다 성숙한 문화의 영향에 따른 문화의 질적 변화;
3. 제거 - 보다 발전된 문화와의 접촉 결과로 인한 고유 습관의 상실;
4. 통합 - 외부의 영향에 의한 문화 파괴로, 충분히 강하고 발전된 고유 문화의 부재로 인해 발생.

전체적으로 인종 차원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하는 과정은 인종 및 그들 문화의 합동(동화, 통합)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할(문화전이, 집단학살)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문화에는 변형되었으나 유니크한 문화들이 많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민족문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민족 국가로서 카자흐스탄은 다양한 관습, 전통, 종교, 예술, 음식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의 영향 하에 있다. 거의 모든 민족은 각자가 고려사람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은 우선적으로 러시아 문화, 그 다음에 카자흐인과 다른 근린 민족들의 문화가 그렇다.

카자흐스탄에서 문화적 상호작용은 기존 민족관계들에 기초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단일민족적 혹은 다민족적 토대 위에서 공동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진 국민적 단일성은 민족간 소통의 언어이기도 한 국가공용어의 창설에 의해 보완된다. 국민적 단일성의 선도 요인은 국경 내의 민족 간 관계를 규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민족과 인종들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공화국의 독립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에게 민족적 부흥과 그들의 문화적 가치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세계적 문화과정에서의 진입을 위한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수십 년 동안 세계적 문화과정에 유리되어 있었다. 공화국의 독립은 국내 민족들의 문화적 협력, 그리고 역사적 조국인 한반도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커다란 가능성을 열었다.

고려사람의 문화는 일정 한도에서 위계적인 가치들을 내포한 복잡한 체계이다. 이 체계는 그것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의 위계적 방침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이내믹하다. 문화적 상호작용은 민족간 소통을 형성하는데, 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더불어, 고려사람의 문화적 적응을 지적할 수 있다. 소비에트 시절에 고려사람은 다른 민족들에 동화되었다고 간주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자주성과 자의식을 유지하였다. 고려인들 사이에 민족적 정체성의 회복 혹은 "뿌리 찾기"라고 이름 붙은 과정이 시작되었다.

물론, 민족적 자의식과 민족애는 민족의 형성과 존속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그것은 인간 정체성의 핵심 구성부분 중 하나이며 민족공동체를 규정하는 주요 특성들 중 하나이다.

이런 측면은 카자흐스탄에서 다민족성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미하다. 한때 스탈린주의 체제가 민족적 특징의 징후들에 대한 탄압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국가에 의해 엄하게 법제화되었다. 카자흐스탄공화국 헌법에는 세계 기준에 맞는 권리가 규정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개인에 고유한 민족성의 명시는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이다.

개인의 민족성은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이며, 더욱이 경시되지 않는다.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문제 영역의 교차점에서 현대의 사회발전 문제가 생겨나며, 그 해결책은 실존적 성격을 획득한다. 어떻게 이 다양성을 적절히 조직하며, 동시에 시민적 단결과 다민족적이고 다종교적인 나라의 합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것은 다문화 카자흐스탄의 긴요한 문제이다.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누르술탄 A. 나자르바예프가 추진하는 《사회적 의식의 근대화》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현대 카자흐 문화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에 여하한 방식으로든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종종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문화의 구성원들과 상호 교류를 한다. 언어적 차이와 생활환경 및 풍속에서의 차이는 그런 교류를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의 작은 문제들에 불과하다. 근본 문제는 의견 상 차이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의 차이에, 세상에 대한 상이한 태도와 상이한 이해에, 사람들에 대한 상이한 태도에 있다.

이 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방해하는 주된 장애는 우리가 우리 문화의 프리즘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찰과 결론은 우리의 문화적 범위로 제한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낱말과 행동의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효율적인 다양한 문화가 그 자체로는 발생할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다양성은 주로 문화적 전통의 다양성 때문에 발생하였다. 전통은 사회와 사회적 그룹의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며 자기 정체성과 발전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각 세대는 일정한 문화 모형들의 세트를 처리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완성된 형태로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선택한다. 이런 의미에서 각 세대는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보전한다.

카자흐스탄에는 다양한 민족문화가 있다. 이 나라 인민들의 삶의 문화는 흥미롭고 다양하다. 그 중 하나가 고려사람의 문화이다. 한국의 풍성한 문화는 자주 독창적인 문화라고 일컬어진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것은 독특하고 한국에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정의는 모호하게 들리고 너무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국 문화의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또는 그것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반도 전체의 문화를 분명하게 조합해야 한다.

독립을 획득한 이래 문화 영역에서 국가 활동의 우선적 순위가 공표되었는데, 그것은 카자흐스탄공화국에 거주하는 여러 종족들의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고려극장은 고려사람의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극장은 전문 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민족 우정의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려극장과 남·북한 예술계와의 국제적 관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상호적 문화 교류는 현대 카자흐스탄과 전세계적 상황에서 유례없이 적실한 주제이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는 나라 안에서 일정한 완결성을 갖춘다. 문화적 상호작용과 상호추가가 많을수록 문화는 더 높게 고양된다.

실제로 문화적 다양성은 의사소통 과정으로 귀착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 활발한 방식으로 문화접변의 다른 과정들에 포함되며, 파트너들에 의한 상호인식을 포함한다. 고려사람은 과거의 문화적 가치들로 회귀하였으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물질문화적인 기념물이 일부 보존되어 있고, 문화를 아는 인물들이 생존해 있으며, 또한 전통, 관습, 직업윤리, 종교 및 사람들의 역사적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사람의 문화 동화: 다수의 문화에 들어간 상태에서 문화적 특성의 획득, 즉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로의 이민을 통한 문화적 특성의 획득 상황. 고려사람은 소수민족이었고 여전히 소수민족이다. 80년에 걸쳐 그들은 지배적인 러시아 민족문화의 특성들을 흡수하였다. 동화는 새로

은 문화에 완전히 용해되어 자신의 민족적 자주성을 상실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일원화로 이어지는 문화적 상호작용 과정은 고려인들에게 문화적 자기긍정과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겠다는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문화적 경계를 여는 과정에 자기 고유의 문화적 경계의 불(不)침투성과 이상 비대화된 민족적 자긍심을 대립시켰다. 고려인들은 외부의 문화적 영향에 대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문화의 융합 과정에 대한 저항의 범위는 다른 문화적 가치의 수동적 거부로부터 그것의 확산과 확립에 대한 적극적 대항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다.

새로운 경제 관계의 결과로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던 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해졌다. 그러한 문화와 직접 접촉할 때, 의복이나 음식 정량의 수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방식에서도 차이가 인식된다. 상호작용은 문화의 여러 수준에서, 그리고 해당 문화권 사람들의 다양한 그룹들에 의해 실현된다.

문화적 다양성 문제. 이전에는 모든 것이 세계관의 차이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불일치에 있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상호작용의 목표가 교제 자체보다 중요한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반대로 교제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애, 선량함 및 개인의 정신상태 같은 범주를 규정한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정한 심리적 불편을 경험한다. 적응의 원동력은 문화적 다양성 과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지배적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다.

경제와 정치의 세계적인 글로벌화 덕분에 문화의 상호작용 과정은 보다 대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한편으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다 동등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적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의 상황 악화는 다른 나라들을 무관하게 남겨두지 않는다. 세계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전 세계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문화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에 거대한 역할을 수행한다.